B-1. 비흡수성 차폐막을 이용한 하악 전치부 골유도 재생술

안장혁*, 허익, 권영혁, 박준봉, 정종혁, 이동렬
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 교실

배경

국소적 치조제 결손은 치아의 발치, 치주 질환, 치아 파절, 치근단 병소에 의해 야기된다. 이러한 결손은 심미적인 문제와 불충분한 골 용적 부족으로 임플란트를 올바른 위치에 식립하지 못하는 문제를 초래한다. 손상된 치조제에서 비흡수성 차폐막을 이용한 골유도 재생술은 예견성 있는 수직, 수평 치조제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. 그 결과 전치부에 심미 수복물을 만들기 적합한 수복물 유도 임플란트 식립이 가능하다.

본 증례에서는 하악 전치부위의 수평, 수직적인 치조제 결손을 회복하기 위해 비흡수성 차폐막과 골이식재를 사용하여 골유도 재생술을 시행하였다.

방법 및 술식

#31,#33,#41,#43의 bridge에서 #31, #41의 협측골의 심한 골소실로 발치하였다. 발치 후 #31,#32,#41,#42부위에서 Seibert 분류 III를 보였다. ICB와 MBCP를 1:1로 혼합하여 이식하고, Titanium reinforced e-PTFE 차폐막을 이용한 골유도 재생술을 시행하였다.

결과

수평으로 약 3mm, 수직으로 약 2mm의 치조제의 증대가 보이고 있으며, 별 다른 임상적 증상 없이 치유가 진행되고 있다. 추후 임프란트 식립시 치조제 결손을 회복으로 기능뿐만 아니라 심미적인 수복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.